

## 안뜰체홉극장 19/20 시즌

### 〈의리적구투〉공연안내

2019.11.1(금)~12.29(일)

**THE APPLE THEATRE**  
1919-2019 한국영화100년기념

義理的仇討

전훈/작, 연출      Based on the Movie 의리적구투 by 김도산  
**SCREAMING FOR VENGEANCE**

# 의리적구투

11월 1일 금  
**OPEN**

안뜰체홉극장  
*the Anton Chulha Academic Society*

협찬 : 한국영화100년기념사업회,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안뜰체홉학회

## 안뜰체홉극장 인사말

대학로를 약간 벗어나 성균관대입구 방향 창경궁 담벼락과 마주한 곳에 자리잡은 안뜰체홉극장은 리얼리즘의 거장 안뜰 체홉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고전의 작품을 주로 상연하는 극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극장이지만 영화관의자를 도입하여 관람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공연중 간단한 음료 등을 마실 수도 있는 관객위주의 관극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로비에서 바리스타가 직접 내린 드립 커피와 다과등을 즐길 수 있는 작지만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입니다.

본 애플씨어터 & 안뜰체홉학회에서는 이러한 공간에서 [체홉의 8대장막]을 상설레퍼토리로 공연하고 여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여름체홉축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셰익스피어, 몰리에르, 아서 밀러, 테네시 윌리엄스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체홉워크샵, 세미나, 학술회의, 특강등이 개최되는 공연과 학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문화공간으로 2014년부터 지속되어왔습니다.

세계최고의 리얼리즘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는 체홉의 [벚꽃동산]은 문학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유학과 연출가 전훈이 번역을 동시에 진행하여 구어체의 편안한 공연감상하여 명작을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하나의 장점은 배우풀인데요, 20대에서 80대까지 자연스러운 연령대의 구성으로 사실감을 더하여, 생기발랄한 젊음과 연륜에 스며든 명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꾸준한 창작극을 발표하는 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9 [의리적 구투], 2018 [아무나 모이는 라이딩클럽], 2017 [렌트더리얼]등

인문학이 충만한 사회를 지향하는 본 단체의 작업에 많은 관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연개요



제목 : 의리적구투 (Fight for Justice)

부제 : 혹은 의리적 구투

원안 : 김도산 (1919)

작&연출 : 전훈 (2019)

공연 날짜 : 11월 1일(금)부터 12월 29일(일)까지

공연 시간 : 금 19:30 / 토일공휴일 16:00 / (금토일만 공연)

공연장소 : 안뜯체홉극장 (대학로 4호선 혜화역, 종로구 성균관로3길 23)

공연소요시간 : 110분

관람등급 : 중학생 이상

관람료 : 19,000원 /(조기예매 및 학생할인 있음)

관람문의 : 02-742-7753 혹은 카톡 '애플씨어터'

# 작품개요

100년전 한국 최초의 영화를 연극으로 만나보다.



연극 의리적 구투 (혹은 구토)의 원안은 1919년 10월 27일 단성사에서 개봉되고 김도산이 극본, 연출한 한국 최초의 동명 영화에서 출발한다.

3.1운동이 일어난 해에 국내자본으로 만든 최초의 영화라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작품 내용 역시 계모(일제)의 압박에서 견디다 못한 명문가문의 아들(조선 혹은 대한제국) 송산이 친구들(백성)과 함께 원수를 정의로이 싸우는 (원수구 칠토, 혹은 싸울투)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에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다고 한다.

현재는 필름도 시나리오도 남아있지않지만 당시의 신문기사에 게재된 줄거리에서 모티브를 얻어 전훈이 쓰고 무대화하여 사실주의 드라마로 창작되었다.

한국영화 100년에 의미를 부여하여 창작된 작품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 최초의 영상연극 100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떠하던 당시 작품의 의미와 재창작의 가치는 한국연극&영화사에 매우 중요한 업적이다.

# 줄거리



아버지의 오랜 병환으로 상심하여 명월관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명문가문의 아들 송산과 의형제 죽산, 매초는 바로 옆방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며 후에 만해선생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독립운동의 자금책과 기밀활동에 참여하기로 한다.

이는 만해선생이 가문에 정신적 지주역할을 해 준 감사의 뜻이기도 하다.

한편, 매초는 우연히 송산의 계모가 유명한 건달 무사시를 만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녀가 송산가문을 망가뜨리려는 계략을 밝혀낸다.

하지만 치밀한 계모는 미국에서 건너온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완벽하게 재산을 갈취하고 명월관의 기생들을 이용해 송산과 의형제들을 죽음의 궁지에 몰아넣는데...

# 희곡 리뷰



작품의 배경은 독립선언을 한 1919년 3월 1일부터 그해 겨울까지 진행된다. 당시의 최고 요정이라는 명월관에서 주인공 송산은 황당한 일을 겪는가 하면, 자신의 부암동 명문가문 재산을 노린 일당의 위협을 받는다. 그런 가운데 그는 독립운동에 자금지원을 하기도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기생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부친이 병을 앓다 돌아가신 후에는 휘몰아치는 운명을 맞아 노숙자가 되고 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결단을 내리기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는 2019 신작 <의리적구투>는 우습고도 슬픈, 정의로우면서도 수치스러운 풍자가 담긴 희비극이다.

명월관이 배경인 1막에서 주인공이 벌인 술판의 옆방이 공교롭게 독립선언서를 민족대표 33인이 낭독한 곳이라던지, 수감된 만해 한용운선생이 쓴 '조선독립의 서'가 기생을 통해 유출되어 상해임시정부로 전달되는 과정은 아주 흥미로운 설정으로 희곡의 백미이다.

한 집안의 몰락을 일제강점기로 비유한 은유적 표현 방법은 세련미를 더한다. 각 인물이 상징하는 메타포를 찾아내는 재미가 있는 이 작품은 안뜯체흠극장에서 고전 작품으로 연기력이 다져진 배우들의 기술적 연기와 독특한 인물묘사가 빛을 발하는 이 작품은 복각이 아닌 창작으로 자리하여 국내 희곡의 마스터피스가 될 것을 확신한다.

- 연출부 이유빈 (경희대철학과, 프랑스 소르본대학 인문학부 졸업)

## Main CAST Profiles 1

**가득희** - 계모(繼母) 역 명문가의 재산을 노린다.



애플리안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업  
KBS 공채 탤런트

마치 즉흥극을 하는 듯한 극사실주의 연기가 강점.  
체홉학회 연기아카데미 강사

[대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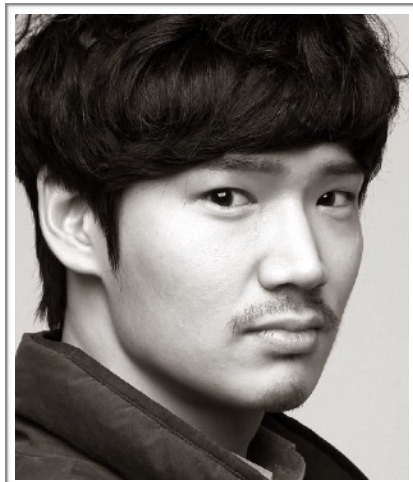
theatre

〈벚꽃동산〉(바라역, 애플씨어터)

〈차이카〉(아르까지나역, 애플씨어터)

〈숲귀신〉(올라역, 애플씨어터)

**유영진** - 명문가문의 아들 송산 역



애플리안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업

뛰어난 분석력으로 인물의 논리적 행동을 창출하는 방법은 일반 연출자보다 낫다는 평  
체홉학회 연기아카데미 강사

[대표작]

theatre

〈인여인간 이바노프〉(올보프의사역, 애플씨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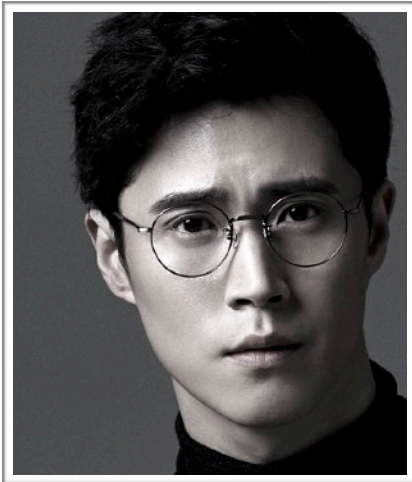
〈차이카〉(꼬스차역, 애플씨어터)

〈파더레스〉(의사 미하일역, 애플씨어터)

## Main CAST Profiles 2

---

최세용 - 무사시 역, 조선을 증오하는 조선인



감각적인 분석으로 인물을 자기화시킨다.

애플리안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업

[대표작]

theatre

〈숲귀신〉 효도르 역

〈세자매〉 살료니 역 (이상 애플씨어터 작품)

---

조환 - 의형제 죽산 역 독립운동중이다.



애플리안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연극과 졸업

직관적이고 굵직한 캐릭터의 연기가 강점.  
암기왕.

[대표작]

theatre

〈아마데우스〉 (살리에리 역)

〈바나삼촌〉 (바나 역)

〈벚꽃동산〉 (로빠힌 역) 이상 애플씨어터 작품



## Main CAST Profiles 3

---

이음 - 요시코 역 미스터리한 인물



애플리안

서경대학 연극과 졸업

인물 몰입도가 뛰어나다는 평  
중성적인 보이스컬러가 매력적

[대표작]

〈세자매〉(마샤 역)

〈벚꽃동산〉(아냐 역)

〈차이카〉(니나 역)

김린 - 길상 역 사랑에 목숨을 바친 기생



애플리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가야금 전공)

대학시절부터 전공인 가야금과 연극을 병행한 재원.  
이번 작품에 작곡을 맡기도 했다.

[대표작]

〈내일은 챔피언〉(가슴이 역)

〈검은 옷의 수도사〉(따냐 역)

〈벚꽃동산〉(두냐샤 역)

## 작가 소개

---

### 극작·연출\_ 전 훈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쉐프킨 연극대 연기 MFA.

現 안뜯체흡학회장

現 극단 애플씨어터 CEO

現 출판사 애플리즘 편집장

#### 주요극작품

〈결혼전야〉, 〈강택구〉, 〈내일은 챔피언〉,

〈AMORA〉, 〈렌트더리얼〉, 〈죽음의 토크쇼〉

---

#### 주요작품

안뜯체흡 4대장막 : 안뜯체흡극장 (2014년부터 상설공연)

안뜯체흡 숨겨진 4대장막 : 안뜯체흡극장 (2014년부터 상설공연)

아마데우스 : 명동예술극장 2011

내일은 챔피언 : 대학로 예술극장 2010

말괄량이 길들이기 : 서울 시극단, 세종 M씨어터 2008

안뜯체흡 4대장막전 : 이해랑극장, 정동극장, 국립극장, 설치극장 정미소 2004

#### 주요경력

안뜯체흡극장 예술감독 및 안뜯체흡학회 의장 (2014~현재)

남해섬 공연예술제 예술감독 (2010~2018)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출강 (2012)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겸임교수 (98~2008)

동국대, 성균관대학교 외래강사 (2002~2004)

#### 수상

10년 [내일은 챔피언] 문화체육관광부 창작팩토리 희곡 공모 최우수작 선정

05년 [세자매] 공연으로 동아연극상 작품상, 연출상 수상

96년 [강택구]로 동서희곡문학 신인작가상

# 휴머니틱 에티튜드 그리고 체홉극장

인문학적 사고가 발달한 사회를 꿈꾸다.



전훈 연출은 연출가를 넘어선 순수문화운동가이다.

자본의 논리 때문에 상업주의 연극이 너무 만연한 대학로에 그래도 고전이 설 자리 한켠을 조금이나마 마련하는 일을 하고있다. 그는 몰염치한 사회가 싫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인문학의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스스로 자각하여 도덕적이며 현명한 사회적 동물이 되어야지 강요와 규제에 의해 통제 되어서는 안된다고 그 첫 시작을 고전읽기와 고전감상으로 두었다.

“분명히 이 사회를 훌륭하게 키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점유율이 낮을 뿐이죠. 이 낮은 점유율은 인문학의 부재 즉, 어린시절부터 고전을 감상하는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엉덩이 흔들는 걸그룹 음악을 듣고 거실에 습관적

으로 켜져있는 막장드라마를 보며 어린시절을 보낸 아이와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뺏속에서 부터 듣고 어린이 고전명작을 보고 읽고 자란 아이중 누가 길거리에 침을 안뱉고, 공공질서를 지키며 자기보다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자각을 가질 확률이 클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것을 되돌아 볼 시점입니다. 너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빨리 달려왔어요. 그간 가난을 벗어나기위해 달려온 것은 이제 위대한 유산으로 남기고 슬로우 워킹을 하며 내면을 쌓아갈 때 입니다. 그래야 모방과 부실이 없는 창조적인 기업이 생기고, 나만 이득을 챙기면 그만이며, 내 아이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가정의 점유율이 낮아질 것입니다. 법으로 규제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변화의 시작은 고전이요, 인문학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는 그 시작으로 학회에서 인문학술 세미나, 연기 워크샵, 특강등을 주재하며 오프(off)대학로 성대입구 안뜰체홉극장(아트씨어터 MOOn)에서 고전작품을 계속 상설공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게다가 그의 연극은 몰입도가 심하다고 정평이 나있다는건 인터파크평에서 다 아는 사실이다.

---

## 애플씨어터 소개

하이퍼리얼리즘 작품을 주로 추구하며 드라마틱한 줄거리와 스파니슬랍스키 메소드에 의한 연기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위주로 공연되는 극단 애플씨어터는 러시아 1세대 유학과 전훈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2000년에 창단하여 꾸준히 공연을 올리고 있다.

### 대표작품

안뜰체홉 4대장막전 - 〈갈매기〉, 〈벚꽃동산〉, 〈세자매〉, 〈바나아저씨〉

안뜰체홉 숨겨진 4대장막전 〈검은 옷의 수도사〉, 〈숲귀신〉, 〈잉여인간 이바노프〉, 〈파더레스〉

〈내일은 챔피언〉, 〈유리가면〉 시리즈, 〈월미도 살인사건〉, 〈죽음의 토크쇼〉, 〈결혼전야〉,

〈희상〉, 〈강택구〉

---

## 안뜰체홉학회 소개

러시아 출신의 세계 문학의 거장인 안뜰체홉의 작품과 관련 문학을 연구하고 발굴하여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일을 하기 위한 순수 단체로서 2014년 체홉 서거 110주년에 창립함.

### 학회 임원진

인문학 \_ 전 모스크바종합대학 교수

정인자 \_ 러시아 국제회의 통역사

임경식 \_ 서경대 교수, 연출가

남명지 \_ 경성대 교수, 배우

박상하 \_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연출가

조태준 \_ 배재대 교수, 문학박사

정인범 \_ 공학박사, 배우

전훈 \_ 극단 애플씨어터 CEO, 출판사 애플리즘 편집장

### 출간물

〈검은 옷의 수도사〉 중편 소설을 희곡화 번역 및 국내최초 출간(국내 초연)

〈숲귀신〉 디렉터 컷 출간 및 번역(국내 초연)

〈잉여인간 이바노프〉 구어체 번역

〈파더레스〉 어레인지 번역

〈안뜰체홉 4대장막전〉 출간

### 행사

[젊은 체홉전], [체홉독백 베틀전] 개최

송백 호현경선생, 조태준, 임경식, 박상하, 인문학 교수 특강 개최

[체홉 연극워크샵] 분기별로 개최

[에쥬드 연기워크샵] 분기별로 개최